
대외건전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

2022. 8. 19

순 서

I. 대외건전성 점검 1

1.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1

2. 외환 · 외채 등 대외지표 2

II. 향후 대응방향 4

I. 대외건전성 점검

1.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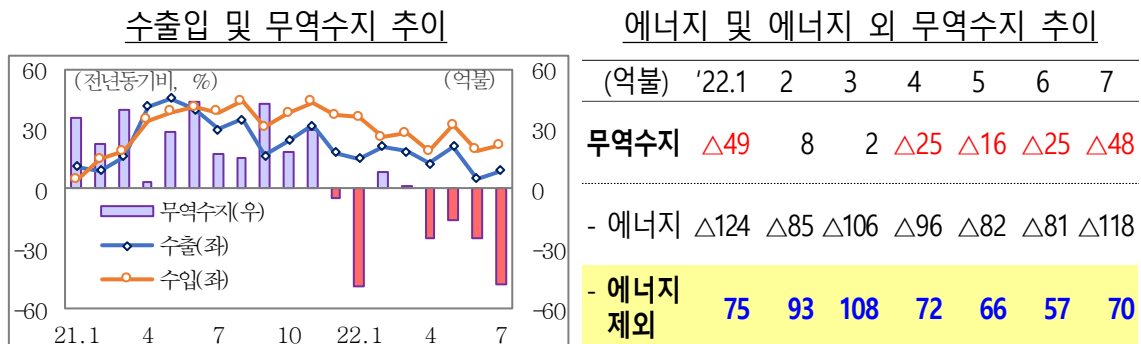
◇ 무역수지는 에너지수입 급증 영향으로 적자를 이어가고 있으나, 해외생산·서비스 등 대외거래를 포괄하는 경상수지는 흑자 유지 중

① [무역수지] 에너지수입 급증 등으로 적자(단, 에너지 외 수지는 흑자)

○ 무역수지는 글로벌 에너지가격 상승 및 하절기 에너지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적자 지속

* 무역수지(억불) : ('22.1) **△49.0** (2)8.4 (3)1.8 (4)**△24.8** (5)**△16.0** (6)**△24.9** (7)**△48.0**

▪ 다만, 수출입에서 에너지 요인(원유·석탄·가스수입 + 석유제품 수출)을 제외한 무역수지는 최근까지 흑자 기록



○ 우리나라 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규모가 큰 일본,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무역수지 악화를 경험 중

※ 참고: 주요국 무역수지 추이

	'22.1	2	3	4	5	6	7
일본(억엔)	△21,994	△6,772	△4,240	△8,538	△23,906	△13,985	△14,367
프랑스(억유로)	△119.8	△124.5	△158.9	△147.7	△166.2	△151.3	-
이태리(억유로)	△51.3	△17.7	△2.3	△36.4	△0.6	△21.7	-
유로존(억유로)	△277.2	△90.5	△175.8	△331.2	△283.6	△246.2	-

○ (일본) '22.7월까지 12개월 연속 적자 + '22.상반기 적자(△7.9조엔)는 반기기준 최대치

* 日 '22.상반기 에너지 수입 증가율(전년동기비, %): (원유) +105.4, (LNG) +95.0, (석탄) +216.5

○ (프랑스) 에너지수입이 급증하며 대규모 무역적자 추세 지속 중

* 프랑스 '22.5월 에너지 수입 증가율(전년동기비, %): (원유) +132.8, (가스) +316.4, (석탄) +244.4

② [경상수지] 작년보다는 다소 축소되었으나, 흑자기조 유지 중

-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, 대외거래의 종합적 건전성을 보여주는 경상수지는 상반기까지 대체로 견조한 흑자기조 유지

* 경상수지(억불) : ('21.6)88.3 ('22.1) 19.2 (2) 64.2 (3) 70.6 (4)△0.8 (5) 38.6 (6) **56.1**
<4월의 경우 통상 외인배당 지급 집중 영향 등으로 적자 경향>

- 이는 해외생산 수출(가공·중계무역, 반도체·휴대폰·가전 등) 호조 및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배당·이자 등 소득수지 흑자에 기인

* 중계무역 순수출(전년동기비, %) : ('22.1) 10.6 (2) 4.4 (3) 19.3 (4) 22.1 (5) 40.2 (6) 50.5

* 소득수지(억불) : ('21.6) **23.0** ('22.1) 15.9 (2) 15.8 (3) 10.6 (4)△36.0 (5) 11.3 (6) **25.1**
대외금융자산(억불) : ('17)14,616 ('18)15,463 ('19)17,214 ('20)19,805 ('21)21,784

- 향후 하반기 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나, 상반기까지 흑자 규모(248억불) 감안시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무난히 달성 전망

※ 경상수지 전망(억불)<GDP대비>(IMF ESR, '22.8): ('21) 883 <4.9%> ('22^e) **490 <2.8%>**
향후 코로나, 러·우전쟁 등 충격 감소로 **GDP의 4%대로 복귀 전망**(IMF, '22.8) ↓

2. 외환 · 외채 등 대외 지표

◇ 선진국 금리 인상, 러·우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최근 대외 지표가 악화되었으나 과거 추이 및 여타국 대비 양호

① 환율 · 보유액 · 외채 · CDS 프리미엄 등 고려시 대외건전성 양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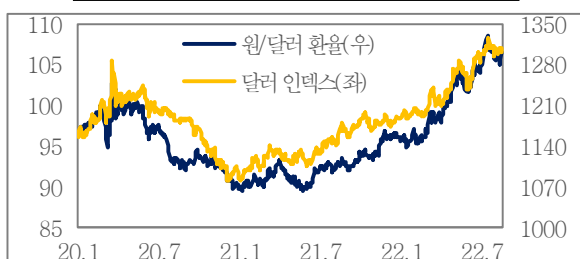
- ① (환율) 원/달러 환율은 상승중(21년말 1,189→22.8.18 1,321)이나, 원화 약세폭은 일본·유럽 등 여타 통화 대비 크지 않은 수준*

* '22년중 통화 절상률(%) : (中)△6.6 (韓)△10.0 (유럽)△10.6 (英)△11.1 (日)△14.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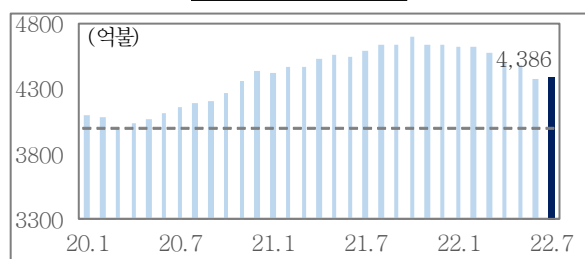
- ② (외환보유액) '22.7월말 기준 4,386억불(6월말 세계 9위)로 코로나前(20.2) 대비 294억불 많으며, 보유액 감소폭은 주요국 대비 작은 수준*

* 보유액 증감율(6월말, 전년말비, %): (스위스)△13.3 (러시아)△7.4 (인도)△7.0 (韓)△5.4

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



외환보유액 추이



③ (외채)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 및 단기외채/보유액 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과거 평균 및 금융위기 수준 대비 양호*

*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%) : ('22.1/4)26.7 (2/4)27.8 과거 10년 평균 28.7, '08.3/4 51.7
단기외채/보유액 비율(%) : ('22.1/4)38.2 (2/4)41.9, 과거 10년 평균 33.8, '08.3/4 78.4

- 금년 들어 은행 부문 중심으로 단기외채가 증가*했으나,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상황**을 고려할 때 외채 상환 능력은 충분

* 美 금리인상前 선조달,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외화수요 확대, 재정거래 유인 확대 등

** 국내은행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(LCR, %) : ('22.6)122.8 <규제비율 80%>

↳ <위기상황下 30일간 예상되는 순외화유출액 대비 즉시 현금화 가능한 고유동성 외화자산 비율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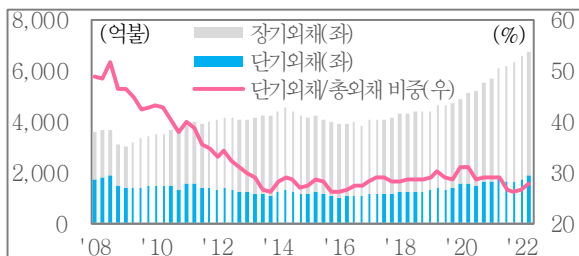
- 또한, 외은지점의 단기 외화차입 대부분은 해외 본점으로부터의 차입으로 상대적으로 상환부담이 작은 측면

④ (CDS 프리미엄) 상승폭은 여타 신흥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*, 최근 들어 우리 CDS 프리미엄은 하락세로 전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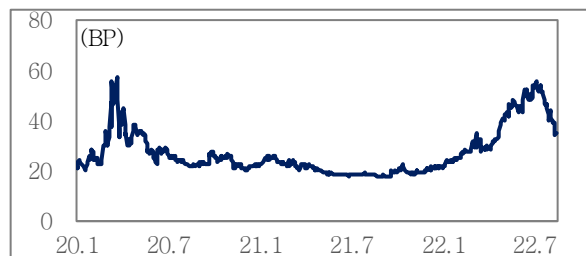
* CDS 프리미엄 상승폭('21말~8.18일, bp) : (韓)12 (말련)28 (중국)31 (인니)27 (베트남)32

** 韓 CDS 프리미엄은 7.6일 56bp(연고점)까지 상승 이후 8.18일 35bp로 하락

단기외채 비중 추이



CDS 프리미엄 추이



② 주요 IB · 외신 · 신평사 등도 우리 대외건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

-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신흥국 대외건전성이 다소 악화되고 있으나 우리를 포함해 아시아 주요국 건전성은 견조하다는 평가

* (WSJ, '22.6) 아시아 주요국 외환보유액 수준, 외채 의존도 고려시 위기 가능성은 낮음
(Moody's, '22.5) 한국 대외건전성은 견조, 경쟁력 있는 경제 구조로 빠른 성장세 예상

- 최근 원화 약세에 대해서도 대외건전성, 수출경쟁력 등 양호한 펀더멘털 고려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인식

* 순대외자산, 외환보유액, 경상수지 흑자 등 고려시 한은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최근의 원화 약세 속도 충분히 감당 가능 (모건스탠리·HSBC 등)

- 다만, 일부 IB는 통화 긴축 및 대외수요 축소를 수출의존도 및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 부담요인으로 언급

II. 향후 대응방향

- ◇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대외여건 가운데서도, 우리 경제 대외건전성은 아직까지 **비교적 양호한 수준**을 유지 중
- ◇ 다만,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및 에너지가격 변동성 확대, 美 건축 강화에 따른 달러 강세 지속 등 대외건전성 관련 **위험요인 상존**
 - ☞ **관련지표·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위험요인은 선제 관리**
+ 시장과의 소통 강화로 대외신인도 유지에 만전

① [무역·경상수지] <단기> 수출활력 제고, <중장기> 무역구조 개선에 총력

- 수출기업 규제개선, 현장애로 해소, 주요 업종별 특화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 수출대책 마련·발표(8월 중)
 - 무역금융 공급 40조원 확대, 중소 수출업체 물류부담 완화 등 旣 마련한 지원책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
- 중장기 안정적 무역구조 구축을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, 에너지관리 효율화 등도 총력 추진 필요

② [외환·외채] 대외 지표 지속 면밀 점검, 위험요인 선제 관리

- 기재부·한은·금융위 등 관계기관 공조下 대외 지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, 필요시 외환건전성협의회·거금회의 등 적시 개최
- 단기외채 증가세 지속, 글로벌 유동성 축소에 따른 자본유출입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 관리*

* 외채 만기구조 장기화를 위한 공공기관 장기 외화채 발행 유도,
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거시건전성 제도(선물환 포지션 등) 탄력 운용 등

- 신평사 협의,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대외건전성과 경제 펀더멘털 전반에 대한 신인도 유지에도 만전
 - 특히, 하반기 신평사 연례협의 과정에서 수출둔화·가계부채·재정건전성 등 주요 이슈에 적극 대응